

【일반논문】

##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 고찰\*

: 2015~2018년 『조선문학』을 중심으로

오삼언 (동국대학교)

### 국문요약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서는 생태담론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2015년~2018년까지 북한의 대표 문학 월간지인 『조선문학』에 드러난 생태담론은 ‘고난의 행군’ 시기 빚어진 자연 파괴행위에 대해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어 흥미롭다.

식량난이라는 엄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 일어난 산림 및 자연파괴 행위는 수치스러운 과거로 표현된다. “나무를 심자”(2015) 등에서 드러나는 이같은 평가는 생태담론이 향후에도 강력하게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산촌의 메아리”(2016)에서는 과거와 달리 산림 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보여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생태담론은 특히, 후대와 미래를 위한 ‘후대관’을 통해 다채롭게 강조된다.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후대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는 후대관은 생태담론과 결합하면서 “생활의 선율”(2017) 등 다수의 작품에서 형상화된다. “특별임무”(2018)에서는 한반도의 산림을 보호하는 임무가 곧 ‘남녘의 산림 학자를 지키라는 후손이 주는 임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은 또한 ‘푸른 산’으로 국가의 미래를 표상하기도 한다. ‘젊음’, ‘푸르름’, ‘설레임’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상은 “나의 재부”(2017), “푸른 숲아”(2018) 등을

---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2일 남북문학예술연구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주최한 ‘2019 북한학-한반도학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통해 향상화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은 이렇듯 과거와는 달라진 시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 김정일애국주의, 고난의 행군, 산림 복구

## I. 서론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서는 생태담론이 뚜렷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보호<sup>1)</sup>, 산림 복구<sup>2)</sup>를 강조하면서 자연보호 정책은 이전 시기와 다르게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줄곧 심각한 문제 제기됐던 산림황폐화에 대해서도 2015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sup>3)</sup> 2016년 5월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산림복구전투를 년차별계획대로 근기있게 내밀어 나라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회에서 수립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는 ‘산림복구전투, 양묘장 조성, 환경보호사업’ 등이 포함됐다.<sup>4)</sup> 『로동신문』, 『민주조선』 등에서는 녹색담론

1) 김정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4.6),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2)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3) 북한은 2015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서 산림분야에 국가예산을 처음으로 별도 편성(9.6%증액)했다. 김석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결과 평가,”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통일연구원, 2016.4.17).

4)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에 대한 글이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환경보호와 지속적 발전을 중시하는 녹색대학을 소개하거나<sup>5)</sup> 생물연료원천을 주목<sup>6)</sup>하는 등의 내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부상한 생태담론을 북한의 대표 문학 월간지인 『조선문학』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조선문학』은 북한문학사 70년을 대표하는 문예지로 2019년 10월 현재 통권 864호에 달한다.<sup>7)</sup> 『조선문학』에 실린 문학작품을 통해 생태담론이 현실 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생태문제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로는 첫째, 환경정책과 산림정책에 대한 논의를 꼽을 만하다. 이 연구들은 관련법과 함께 시기별 정책 흐름을 개괄했다. 환경분야를 보면 환경법 개정과 김정일의 교시 등을 기준으로 환경정책을 두 시기(1945~1970년대, 1980~1990년대)로 나누어 살펴기도 한다.<sup>8)</sup> 2009년까지 환경법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정리한 뒤 환경보호를 위한 북한의 사회·윤리적 노력, 특히 북한의 환경윤리에 대한 정의 등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sup>9)</sup> 남·북한 환경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북한이 환경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미흡해 환경정책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하기도 한다.<sup>10)</sup> 산림

『조선신보』, 2016년 5월 8일.

- 5) “대학발전의 세계적 추세- 녹색대학,” 『로동신문』, 2018년 1월 14일.
- 6) “생물연료의 개발생산은 연료를 얻는 동시에 지구온난화방지에 기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일거양득의 산업이 되고 있다,” “주목되고있는 새로운 생물연료원천,” 『로동신문』, 2018년 1월 22일.
- 7) 1953년 10월 25일 창간한 『조선문학』은 통권 표기가 없다가 1956년 1월호부터 ‘루계 101호’로 시작되는데 이는 『조선문학』이 1946년 7월 창간한 『문화전선』을 잇는 작가조직 기관지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김성수, “북한 초기 문학 예술의 미디어 전장,” 『상허학보』, 제46권 (2015), pp. 259~260.
- 8)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 『진보평론』, 제12호 (진보평론, 2002).
- 9) 차승주, “북한의 환경담론,” 『도덕윤리과교육』, 제49호 (2015.11).
- 10) 김미자,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방안-그린데탕트를 위하여,” 『환경정책』, 제23권 3호 (2015.9).

분야에서는 북한의 산림법과 산림조직 등을 개괄하거나<sup>11)</sup> 보호림 제도의 특징과 휴양소 시설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sup>12)</sup> 북한의 산림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류, 분석하고<sup>13)</sup> 남북의 산림법과 산림정책을 비교하기도 했다.<sup>14)</sup>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 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15)</sup> 산림 관련 북한의 언론보도를 주제별로 분석하거나<sup>16)</sup> 임농복합경영의 배경과 내용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sup>17)</sup>

둘째, 북한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제언하거나 복원모델을 제시하는 논의들이 있다. 복원모델과 관련해서는 북한 산림경관의 생태적 복원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가 있다.<sup>18)</sup> 북한의 환경생태적 우수지역 평가기법을 정리하거나<sup>19)</sup> 생태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을 북한 물 관리에 적용한 경우도 있다.<sup>20)</sup> 이밖에 생태도시 개발정

- 
- 11) 박경석·이성연·박소영,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08).
  - 12) 박경석·박소영,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 13) 김성욱,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圓光法學』, 제26권 2호 (2010).
  - 14) 오삼언·김은희·김경민·박소영,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 15)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2호 (2018).
  - 16) 이종민·송민경·박경석,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 (2017).
  - 17) 김수영·박소영·박경석,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 28권 2호 (2016).
  - 18) 유재심, “북한 산림경관 생태적 복원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19) 김근한, “북한 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기법,”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20) 이경희, “북한 물 관리의 정치 -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물 협력에 대한 오스트롬(E. Ostrom)의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적용,” (북한

책과 관련한 논의로 평양을 두고 생태도시 구현방안을 논의하거나<sup>21)</sup> 평양의 각종 유희시설을 정리하기도 했다.<sup>22)</sup>

셋째, 생태 담론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근접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가 ‘자연개조’ 이데올로기로 대표되며 핵심 내용은 ‘인간중심’ 과 ‘생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분석한 연구<sup>23)</sup>가 있다. 이 연구는 1960~1990년대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자연개조 노선에 대해 중점 분석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소설에 나타난 생태환경담론의 특성에 대한 연구<sup>24)</sup>는 본 연구에서 여러모로 참조 가능하다. 이 연구는 2015~2017년 『조선문학』에 실린 5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생산력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뤄지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밖에 장편소설 『동해천리』와 영화 『동해의 노래』를 중심으로 북한의 생태인식을 고찰한 연구<sup>25)</sup>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 근대주의적 발전론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어 생태주의적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에코파시즘을 드러낸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김정일애국주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돼 생태담론이 두드러지는 2015년

---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9.

21) 이탁연,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평양의 생태도시 구현방안 연구: 라 아바나와 부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2) 배금완, “북한 공원·유원지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23) 민기재,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 및 실천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24) 오창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7호 (2018).

25) 신진숙, “‘동해’를 통해 본 생태주의의 제문제 - 북한의 문학예술작품 『동해천리』와 『동해의 노래』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9권 (2012).

부터 2018년까지를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산림복구전투는 2015년 신년사에 이어 2월 26일 노작을 통해 강조됐으며<sup>26)</sup> 주요 산림정책들 또한 노작 발표를 전후로 시행됐다.<sup>27)</sup> 2015년은 산림법, 환경보호법, 도시경영법 등이 재개정된 시기이다. 원림법은 2013년에 개정됐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태 문제를 소재 삼은 『조선문학』의 문학작품들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 2015년과 2016년은 각 7편, 2017년 6편, 2018년 3편으로 모두 23편이었다. 작품 목록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생태문제를 소재 등으로 다룬 2015~2018년 『조선문학』 작품 목록

호수	제목	장르	작가
2015. 2	보습산	단편소설	오광철
2015. 2	민아카시아	단편소설	주설용
2015. 3	나무를 심자	수필	엄성영
2015. 3	좋은 봄이다	시	김명철
2015. 3	뿌리깊은 나무	단편소설	리국철
2015. 8	새들이 날아들 때	소설	한은희
2015. 9	숲에 대한 생각	수필	송혜경
2016. 1	숲을 사랑하라	단편과학환상소설	리명현
2016. 2	산촌의 메아리	단편소설	윤상근
2016. 3	푸른 산 푸른 들 - 젊어지는 조국이여	시	김경남
2016. 4	푸른 산 한 그루 나무	단편소설	백상균
2016. 9	두 번째 작별	단편소설	김순향
2016. 9	출발의 아침	단편소설	박성호
2016. 11	푸른 산, 푸른 들	단편소설	정영종

26)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27)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은 크게 ‘산림정책의 전략화’, ‘산림관리의 전국화·체계화’, ‘산림복구와 산림개조 병행추진’, ‘산림과학기술 중시’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8).

2017. 4	일군	실화문학	김인순
2017. 6	푸른 숲아	시	윤정아
2017. 7	나의 재부	련시	박 혁
2017. 8	오가산을 찾아서	방문기	김진경
2017. 8	보랏빛채송화	단편소설	리정옥
2017. 11	생활의 선률	단편소설	김창림
2018. 11	숲의 이야기	시	채동규
2018. 11	특별임무	단편소설	허문길
2018. 12	숲에 들렀다 가시라	시	황성하

선행 연구들이 대체로 산림법과 환경법을 논의하거나 산림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와 대안을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생태담론이 어떻게 생성, 작동되고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북한을 생동하게 이해하는 데서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문학』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생태담론이 어떻게 서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북한의 생태환경 전망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 분석은 남북 협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사례가 될 것이다.

## II. 김정은 시대 문학작품 속 생태담론의 특징

### 1. ‘고난의 행군’ 후과와 강력한 생태담론의 태동

‘고난의 행군’은 갖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사회주의 조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소환돼왔다.<sup>28)</sup> ‘승리자의 영웅서사시’<sup>29)</sup>로 전승돼

<sup>28)</sup> 오삼언, “북한의 지도자 형상화와 기억정치: 장편소설 『영생』과 『야전렬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왔던 고난의 행군을 다른 논조로 공식적으로 환기한 것은 다름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는 2015년 산림황폐화의 원인을 두고 ‘고난의 행군 후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다른 방식으로 호명했다. 노작<sup>30)</sup>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나라의 산림은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사람들이 식량과 땀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망탕 찍은데다 산불방지대책도 바로세우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나무가 없는 산들을 보시며 이것도 고난의 행군후과”라고 밝힌 그의 언명은 문학작품들에 다양한 종자를 파종하게 된다.

우선 생존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자연훼손 행위를 했다면 ‘죄’라는 등식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는 수필, “나무를 심자”<sup>31)</sup>는 자연환경 파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수필은 고난의 행군 시절 소나무껍질로 끼니를 해결하다가 고향땅을 떠났던 친구, 병삼을 화자가 우연히 만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고향을 떠나갔던 그 병삼”이는 죽어갔던 소나무를 떠올리며 양묘공이 되어 나타난다. 그는 “다시 고향땅을 찾아 나무모를 심는 것으로써 당시 나무를 상하게 했던 죄를 실천으로 씻겠다”고 결의를 다진다. “송기를 벗기고 물에 불구어 방치질을 한 다음 그것으로 송기떡을 만들어 어린것들의 배고픔을 얼마간 달래였”던 고난의 행군 시절 흑독한

29) 『로동신문』은 “고난의 행군은 승리자의 영웅서사시이다. 혁명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며 혁명의 승리는 꽃피는 봄처럼 저절로 오지 않는다”면서 “고난의 행군은 사회주의승리의 영웅서사시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9년 12월 12일.

30)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31) 엄성영, “나무를 심자,”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

끓주림과 병치되는 것은 소나무 훼손의 장면이다. “껍질을 벗기운 소나무에서는 아픔의 상처인양 진액이 흘렀”고 그 진액은 “내 살점을 저며내는 것 같아 차마 견딜 수 없”던 소행이라는 표현은 산림이 황폐화된 과정을 환기하며 이를 ‘죄’로 명명하고 속죄의 행위로 ‘나무심기’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 수필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나무를 살에 빗댄 표현이다. 이 비유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작에서 연유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애국주의’ 관련 노작<sup>32)</sup>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단편소설, “생활의 선율”<sup>33)</sup>에서도 “조국의 풀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진정으로 자기의 피와 살처럼 안을 때 리수복 영웅과 같이 조국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조국이라고 떳떳이 부를 수 있는 거다”라며 나무를 살에 비유한다. 이렇게 ‘나무(풀) = 피와 살’이라는 의미를 담은 생태담론이 태동하게 된다.

2015년 이전 문학작품들 속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 빚어진 자연환경 파괴행위를 형상화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2006년 단편소설 “우리 선동원”<sup>34)</sup>에서는 자신의 집수리를 위해 몰래 벌목한 일이 알려져 ‘벌목부아저씨’라고 놀림을 당하는 인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 단편소설에서도 고난의 행군 시기 산림 훼손에 대한 반성이 엿보이지만 수필 “나무를 심자”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나무훼손 조차 ‘죄’로 상정한 것과 비교하면 결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기 “오가산을 찾아서”<sup>35)</sup>에서도 같은 맥락

32)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조선신보』, 2012년 8월 3일.

33) 김창림, “생활의 선율,”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34) 황청일, “우리 선동원,” 『조선문학』,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난 해결을 위한 벌목이 도처에서 자행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화자는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나무를 베서 식량을 사오자고 여기 들어와 애를 먹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가산의 운명이 위태로웠다”고 언급한다. “물론 관리소종업원들의 식량사정도 말이 아니었다.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간의 식량을 얻어가질 수도 있었”으나 “혁명의 뜻이 어리고 조상의 넋이 깃든 오가산에 절대로 손을 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종업원들은 벌목을 막았다.

산림 훼손의 원인으로 고난의 행군 시절 혹독했던 궁핍상을 냉정하게 언급하는 이같은 논조는 공식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전까지 고난의 행군은 사회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기억이자 가슴 아픈 공통기억으로 호명돼왔기 때문이다. “문노니, 력사여. 무엇 때문에 (중략)사람들이 배를 곯고 추위에 떨어야했으며 그 어느 동란의 시기에도 있어보지 못한 가혹한 생활난을 겪으면서 남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가슴 아픈 희생도 내야했던가”<sup>36)</sup>라며 통탄하는 논조와도 분명히 결이 다르다. 지난 시기에는 대북 제재와 봉쇄 등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위로와 격려’의 관점에서 고난의 행군을 환기했다면 2015년 현재의 관점은 고난의 행군이 빚은 자연파괴에 대한 ‘결과’를 두고 ‘평가’에 기초해 있다. 산림훼손, 자연파괴 행위는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에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로 전환되면서 생태담론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단편, “숲을 사랑하라”<sup>37)</sup>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절 산림 파괴를 “수치스러운 과거”의 오류로 기술한다. 작품 속 화자는 “산림과 나무가 저절로

35) 김진경, “오가산을 찾아서,” 『조선문학』, 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36)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37)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자란다 하여 자기 대만 살면 그만이라는 리기심으로 내버려두고 심지어 파괴하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더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에둘러 고난의 행군 시기의 산림파괴를 ‘수치스러운 과거’로 규정한다.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은 산림훼손, 자연파괴 행위에 대해 고난의 행군 시기라 하더라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행위로 강도 높게 평가하는 한편 나무를 사람의 피부, 살에 빗대는 비유 등을 통해 강력한 생태담론으로 태동하고 있다.

## 2. 산림복구를 둘러싼 갈등과 화해

산림복구를 주제로 한 소설 대부분이 산림복구를 하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면, 산등성이에서 농사를 지어 산림훼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다. 단편 “산촌의 메아리”<sup>38)</sup>는 산등성이에서 농사를 짓던 당사자가 산림복원 과정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땀나무 채취, 무분별한 산지 개간<sup>39)</sup> 등을 방치했던 당국이 문제를 수습하면서 빛어지는 양상이 드러나는 셈이다.<sup>40)</sup>

<sup>38)</sup> 윤상근, “산촌의 메아리,” 『조선문학』, 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sup>39)</sup> “개간산지는 세계적으로 비탈밭과 다락밭(논)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락밭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유일하게 경사지일 때, 주민이 계단식 경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작물을 대배하여 지역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다락밭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있다. 비탈밭은 경작지가 부족한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증가하였을 때, 더 가난해진 주민들이 더 많은 토지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간하기 때문에 자연재난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북한이 대표적인 사례지이다,” 유재심·박현·이상혁·김경민,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제 19권 (2016), p. 20.

<sup>40)</sup> 국립산림과학원의 인공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은

장명환은 연로보장(은퇴)을 받았음에도 군 식품공장의 원료로 사용되  
는 강냉이 농사를 산등성이에 10여 년간 지어온 인물이다. 그는 산등성  
이에 밭을 일군 첫째 그루터기와 바위들을 골라내느라 고생하기도 했지  
만 식품공장 원료를 납품하는 데서 보람을 느껴왔다. 그런데 자신의 농  
사가 이제 와서 잘못된 일로 평가되자, “소중히 쌓아올린 삶의 공지와 자  
부심이 밀뿌리채” 뒤흔들린다.

인생의 노년을 강냉이 농사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장명환에게 고향의  
자랑이자, 자신의 자랑이기도 한 친구인 군인민위원회 위원장 심학진이  
나타난다. 그는 장명환에게 산등성이에 강냉이가 아니라 나무를 심자고  
권유하면서 “군 식품공장의 원료를 보장한 자네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야할 땅에 곡식을 심으면서도 정당화했다”고 비  
판한다. 심학진의 권유와 비판에 장명환은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부정당  
하는 느낌이다.

장명환이 “욕망같아서는 당신이 뭐기에 나를 욕되게 하려드느가고 소  
리치고 싶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심학진은 군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장명환이 심  
학진을 향해 설움 가득한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심학진으로 표상되는  
북한 당국, 곧 국가를 향한 개인들의 심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장명환  
의 복잡한 심정의 재현은 ‘또다른 장명환’들의 심정을 환기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작품은 장명환 만이 아니라 심학진의 반성을 함께 형상화함으  
로써 ‘또다른 장명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동의를 얻어내는 효과를 만들  
어내고자 한다. 장명환의 아들이 아버지를 달래는 것도 그러한 배려에

---

2008년 284만ha에서 2018년 262만ha로 감소했으나 전체 산림의 28%가 황폐지  
로 분류됐다.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림황폐지 실태 파악,” 『국립  
산림과학원보고서』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08);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  
림과학기술포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19).

해당한다.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등판에 나무를 심는거야 응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땀흘려 낚알을 가꾸어온 아버지들의 십년세월을 존중한다면서 누구 하나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라며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시킨다.

장명환의 반성은 “산림복구전투가 벌어지는 마당에 벌거숭이산을 그대로 부쳐먹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 “산 아닌 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했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장명환이 이렇게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심학진에 대한 서운함이 모두 풀리지 않았음을 노출한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학진은 장명환이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다. 장명환은 아들의 독려 속에 그제야 심학진을 찾아가 화해를 청한다. 이렇듯 장명환과 심학진의 갈등 해소 과정은 끝까지 순탄하지 않다. 이 과정의 곡절은 고난의 행군으로 빚어진 산림 훼손을 두고 국가와 주민, 세대별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주민에 초점을 두고 ‘또다른 장명환’들을 독려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산촌의 메아리”에서는 북한 당국조차 산림훼손을 묵인, 방조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 산림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읽어낼 수 있다.

2016년 작 “산촌의 메아리”를 1999년 시 “쌀함박”, “노래로 높아지는 산정우에서”와 비교하면 산등성이 농사를 둘러싼 대비를 선명히 비교할 수 있다. “산촌의 메아리”가 산등성이에 나무가 아니라 곡식을 심은 과오를 짚었다면 1999년 시 “쌀함박”<sup>41)</sup>은 산등성이에 곡식을 심은 성과를 노래한다. 제목 ‘쌀함박’은 산등성이에 지은 쌀농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sup>42)</sup>

41) 문동식, “쌀함박,” 『조선문학』,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9).

“우렁찬 산밭의 봉우리마다/ 살진 이랑들이 휘감겨올라/ 내 머리들어 바라볼수록/ 높은 산 깊은 골은 쌀함박같구나// <고난의 행군> 엄혹한 세월/ 조국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들/ 자력갱생 화불을 높이 추켜들고/ 산판을 벌판으로 가꾸어놓았거니// (중략) 제국주의 원수들의 압살의 광풍속에/ 그 어떤 정신과 그 어떤 량심만이/ 바위와 벼랑들에 뿌리내렸는가를/ 나에게 다 말해주는 여기// 오, 산촌의 이 쌀함박속에 안겨/ 나는 자부하노라/ 애국자와 충신들이 사는 나의 조국/ 이보다 강한 나라 세상에 없음”

시에서 산등성이 농사는 ‘살진 이랑들’로 표현되며 산판을 벌판으로 가꾸는 애국심이 낳은 성과로 그려진다. 산등성이 농사는 “오, 산촌의 이 쌀함박속에 안겨/ 나는 자부하노라”로 뿌듯한 심정을 노래하는 계기가 된다.

2016년 작 “산촌의 메아리”에서 산등성이 농사는 군 식품공장의 원료를 보장하는 일이었음에도 잘못된 일로 평가된다. 반면 1999년 작 “노래로 높아지는 산정우에서”<sup>43)</sup>에서는 “깊은 산중에 일떠세운 원료기지”로 칭송된다.

“그렇게 기울인 뜨거운 진정우에/ 해마다 무수한 씨앗이 움터자라/ 장군님께 드리는 기쁨의 노래를/ 감자와 강냉이 해바라기 풍년물결/ 끝없이 이어 이어 부르는 여기// (중략) <고난의 행군> 시기 충신효자들/ 여기 깊은 산중에 일떠세운 원료기지/ 자력갱생의 아름다운 이 락원에/ 장군님을 모시고 싶어/ 모시고 싶어”

시에서 산등성이 농사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이겨내는 자력갱생의 힘

42) ‘쌀함박’은 “내 눈길들이 뜨겁게 바라보는/ 산정의 이랑들은 일고 일었구나/ 쌀속에서 쪽정이를 갈라내듯이/ 애국과 배신 충신과 역신을”라는 시구를 볼 때 쌀농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3) 문동식, “노래로 높아지는 산정우에서,” 『조선문학』,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9).

이다. 화자는 “취뿌리 캐내여 씹을 때에도/ 장군님 드시는 쥐기밥을 생각 하면/ 허리띠를 또 한번 조이면서도/ 뿌려가는 땀만은 아낄줄 몰랐지”라며 산등성이 농사를 노래한다. 반면 2016년 작 “산촌의 메아리”에서 산등성이 농사는 나무를 심어야 할 땅에 곡식을 심는 잘못된 일로 표현된 것이다.

산등성이 농사는 1970년대 말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으로 확산됐으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본격화된 것이다.<sup>44)</sup> 이같은 배경에서 1999년 작품들은 산등성이 농사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게 되며 김정은 시대에 접어든 2015년 이후 작품들은 달라진 시대 변화 속에서 ‘양심의 빈 구멍’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 3. ‘김정일애국주의’의 후대관과 결합된 생태담론

“아, 숲은 설레인다/ 숲은 이야기한다// 우리 장군님처럼/ 이 산천 사무치게 사랑하라고/ 심장을 바쳐 조국을 사랑하라고...”<sup>45)</sup> 시, “숲의 이야기”에서처럼 숲은 ‘조국애의 거점’으로 등장한다. 생태담론이 조국애, 애국심과 결합되는 면모는 김정은 시대가 표방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담론이기도 한 ‘김정일애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46)</sup> 김정일애국주의

<sup>44)</sup> 자연개조 5대방침은 1976년 시행되었는데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 정보의 밭에 관개 실시, 경사도가 16°이상에 달하는 15만~20만 정보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대 자연개조사업은 1981년에 제기됐으며 간석지 개간과 다락밭 건설사업 등을 지속하는 것이었다. 자연개조 5대방침과 4대 자연개조사업은 무분별한 개간으로 이어져 산림 등 자연파괴의 계기가 된다. 오삼언·김은희·김경민·박소영,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9), p. 175.

<sup>45)</sup> 채동규, “숲의 이야기,”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sup>46)</sup> ‘김정일애국주의’는 2012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노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서 정식화됐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는 “부강조국 건설의 지침”<sup>47)</sup>으로 해석되면서 정치, 경제 등 전반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으로 구성되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생태환경담론과 구체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중 특히 후대관과 관련된 부분이다.<sup>48)</sup> 후대관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로 집약된다. 후대관의 주요 내용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 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sup>49)</sup>로 설명된다. 생태환경 관련 사안이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후대관과 맥락이 연결되는 것이다.<sup>50)</sup>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는 혁명정신”이며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은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숭고한 리념”<sup>51)</sup>이 김정일애국주의이므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산림복구전투”<sup>52)</sup>가 꼽힌다. 따라

---

한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로 설명된다.

- 47)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 건설지침 (조선신보), 『연합뉴스』, 2012년 9월 10일.
- 48) 조국관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이며 인민관은 김정일의 좌우명이었다는 ‘이민위천’을 강조한다.
- 49)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조선신보』, 2012년 8월 3일.
- 50) 데자르텐은 미래세대에 대한 염려가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행위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J. R. 데자르텐,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pp. 121~157.
- 51)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고 있는 숭고한 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9일.
- 52)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 『로

서 산림을 다루는 문학작품들에서 후대관을 반영한 내용과 표현들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내 사랑 나무모들아”<sup>53)</sup>라는 표현 등도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작시, “나의 재부”<sup>54)</sup>에 등장하는 ‘후손’과 ‘어린 나무’ 또한 이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십년이 지나고 또 십년이 지날 때/ 너와 함께 자라난 우리 후손들/ 아름다운 조국산천 바라보며/ 행복에 젖어 노래하려니// 아, 어린 나무들아/ 너희들에게 우리 생을 이어놓는다/ 조국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노래속에/ 우리들의 낮은 길이 향기를 뿜으리라”

소설에서도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사례가 있다. 단편, “생활의 선률”<sup>55)</sup>에서는 후대 앞에 떳떳하기 위해 산림복원을 하는 ‘순철이네’ 가정이 등장한다. 남편의 시점에서 경어체로 쓴 이 소설은 아내가 유치원교양원을 그만두고 산이용반이 되려한 이유를 뒤늦게 깨닫는 과정이 주된 내용을 차지한다. 남편은 “우리 순철이 앞에, 후대들 앞에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산이용반에 이어 산림독원이 된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날, 자신도 아내처럼 산림감독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다. 소설에서는 산이용반, 산림감독원이 힘든 일이기에 아내가 맡는 것을 탐탁치 않아하는 남편의 심정이 드러나며 산림복구에 대해 ‘힘겨운 일이자, 후대를 위한 일’이며 “숭고한 애국의 뜻을 량심으로 받들려는 마음”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

동신문』, 2018년 2월 26일.

53) 김명철, “좋은 봄이다,”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

54) 박혁, “나의 재부 어린 나무들에 부치여(2),” 『조선문학』,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55) 김창림, “생활의 선률,”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한반도 전체의 산림을 후대관과 연결지어 형상화한 작품도 있다. 한국 전쟁 당시 산림학자와 분대장을 작전에서 제외시켜 목숨을 살리는 한편,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 전체가 전사한 일화를 담은 “특별임무”<sup>56)</sup>는 후대관과 연결시켜 산림복구 문제를 극대화시킨 경우다. 남녘 출신의 산림학자 마영림은 전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에 분노하다 인민군에 입대하게 된다. 마영림은 다리 폭파를 위해 자신의 손으로 나무를 찍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이를 지켜본 박락호 중대장은 한밤중에 몰래 나무가 베어진 장소를 찾아가 작은 나무를 옮겨 심는다. 박락호 중대장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 “다문 한포기라도 심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불같은 충동에 떠밀려 그리고 학자의 조국애를 감히 모독하는 침략자에 대한 분노를 금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락호 중대장 또한 마영림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인물인 것이다. 박락호 중대장은 전투를 앞두고 마영림과 오현수 분대장에게 편지 전달을 명령한다. 그러나 편지 전달은 마영림과 오현수를 살리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려는 중대장의 방편이다. 편지는 마영림과 오현수에게 전하는 중대장의 유언이기도 하다.

“숲은 미래에 속하며 그 미래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가꾸어야한다고. 옳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래일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준엄한 싸움을 구실로 미래를 가꾸는 선생이 귀중한 뜻을 포기하게 할 권리가 없으며 남녘의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하려는 선생과 선생의 전망도와 문문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후손들이 남녘의 한 애국적인 학자를 위해 우리 병사들에게 안겨주는 더없이 신성한 의무로, 영예로 간주합니다”

‘숲=미래’이며 ‘한반도 산림전망도를 지키는 일=남녘 산림학자를 지키는 일=후손들이 주는 의무’로 여겨 죽음을 각오했다는 중대장의 편지는

56) 허문길, “특별임무,”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미래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김정일애국주의의 후대관과 산림이 연결되는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인 숲을 목숨으로, 피로 지켜낸 중대장의 편지를 두고 작품 속 화자는 “그것은 마치도 조국의 먼먼 미래에 보내는 이 나라 충직한 공민들의 영원한 축복의 인사이런 듯 심장을 꿰게 하였다”고 표현한다. 이 작품의 맥락은 마치 2017년 3월 2일 식수절 『로동신문』에서 “정세가 극도에 달하고 설사 래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를 순간도 멈출 수 없다”<sup>57)</sup>고 강조한 표현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 4. ‘푸른 산’으로 표상된 부강조국의 미래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은 특히 ‘푸른 산’으로 표상되는 미래상을 담고 있다. 2015년 발표된 시, “좋은 봄이다”<sup>58)</sup>는 ‘울창한 수림=부강 조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제 너희들 무성하게 자라/ 울창한 수림이 되면/ 금수강산 이 땅은 더 수려해지고/ 너희들 안겨주는 무진장한 보물로 하여/ 우리 조국은 더 부강해 지려니”

산림복구는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벌거숭이산이 변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후과로 꼽히는 ‘벌거숭이산’, ‘흙산’과 자연스럽게 비교되면서

57)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7년 3월 2일.

58) 김명철, “좋은 봄이다,”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

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별거숭이산’(고난의 행군/과거)→‘산림복구’(산림복구전투/현재)→‘보물산, 황금산’(사회주의 강성국가/미래)의 도식인 셈이다.<sup>59)</sup>

‘푸른 산’이라는 산림녹화의 미래 상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더해 ‘젊음’이라는 청년의 이미지를 겹쳐놓는다.<sup>60)</sup> “아, 조국이어/ 그대의 아들딸이 가꿔가는/ 푸른 산 푸른 들로/ 내 조국은 천만년 더 젊어지리라”<sup>61)</sup>라는 시적 전언에는 조국의 앞날은 부강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과 무한히 확장되는 발전의 시간대를 담고 있다. 이같은 구도는 연로보장을 받은 노인이 화자인 연작시, “나의 재부”<sup>62)</sup>에서도 잘 확인된다. 이 시에서는 “푸른 숲=젊어지는 조국=원수님 진두지휘”라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아, 우리 원수님 진두지휘하시는 /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선 / 우리 마음  
이야 어찌 늙으랴”<sup>63)</sup>

“숲은 청청 푸르고/ 내 머리는 하얀 백발이 되고/ 그러면 어떠랴/ 년륜을  
휘감으며/ 아름다리거목으로 푸른 가지 펼치는데야// 그러면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도 너처럼 청청 젊어지리라/ 백발우에 떠인 푸른 숲이/ 조국산천을  
싱싱 젊게 하며/ 나에게도 젊음을 주리라”<sup>64)</sup>

59)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 14권 2호 (2018), p. 109.

60) 『로동신문』은 “한반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내 나라의 산천은 이렇게 수립화, 원림화의 푸른 시절을 맞이하고 우리 조국은 그 청청한 기상으로 〈조국찬사〉의 선율속에 끝없이 젊어지고 있다”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이미지에 ‘젊음’을 더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내 나라의 숲이어, 애국의 숭고한 뜻 전하며 무궁토록 설레이라,” 『로동신문』, 2015년 7월 2일.

61) 김경남, “푸른 산 푸른 들- 젊어지는 조국이어,”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62) 박혁, “나의 재부,” 『조선문학』,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63) 박혁, “나의 재부-폭우 지난 뒤,” 『조선문학』,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64) 박혁, “나의 재부-어린 나무들에 부치여(1),” 『조선문학』,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또한 푸른 산은 “번영하고 부강해지는데/ 사회주의 내 나라의 장한 모습이 되어 / 세상이 부러웁게 설레고 또 설레이라”<sup>65)</sup>로 표현되면서 ‘부강번영한 조국’의 모습을 담아낸다.

이렇듯 ‘푸른 산’이 표상하는 미래의 청사진은 젊고 설레이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조국이다. “어쩌면 환상같은 그날의 울창하고 화려한 숲이 방불히 떠올라 꿈에 취한 듯”<sup>66)</sup>하다고 고백한 작품의 화자처럼 생태담론이 그려내는 미래 청사진은 부강번영한 조국, 화려한 조국이기도 하다.

### Ⅲ. 결론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은 ‘사회주의승리의 영웅서사시’였던 고난의 행군에 대해 ‘후과’라는 냉정한 시선에서 출발하는 변화된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빚어진 산림 황폐화와 관련된 일화, 이와 대비되는 미담 등이 언급될수록 고난의 행군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호출된다. “나무를 심자”(2015), “오가산을 찾아서”(2017), “숲을 사랑하라”(2016)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난의 행군 시절 식량난이라는 엄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연 훼손은 ‘수치스러운 과거’등으로 표현된다. 고난의 행군 후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나무를 사람의 피부, 살에 빗대는 비유 등은 생태담론이 향후에도 강력하게 작동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산촌의 메아리”(2016)에서는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의 부상에 따라 복잡해진 주민의 심경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과거 고

65) 윤정아, “푸른 숲아,” 『조선문학』, 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66) 정영중, “푸른 산, 푸른 들,”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난의 행군 시절처럼 산림 훼손을 목인·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 복구라는 당 정책이 수립된 변화된 시대, 국가의 요구를 두고 국가와 주민 간에 빚어지는 갈등과 화해의 서사를 보여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된 생태담론은 특히, 후대와 미래를 위한 ‘후대관’을 통해 다채롭게 강조되고 있다.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후대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는 후대관은 생태담론과 결합하면서 문학작품으로 창작되고 있다. “생활의 선율”(2017), “숲의 이야기”(2018) 등 다수의 작품에서 후대와 미래를 위한 산림복구와 자연보호가 주된 소재가 되고 있다. “특별임무”(2018)에서는 한반도의 산림을 보호하는 임무가 곧 ‘남녘의 산림학자를 지키라는 후손이 주는 임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김정은 시대의 생태담론은 또한 ‘푸른 산’으로 국가의 미래를 표상하기도 한다. ‘젊음’, ‘푸르름’, ‘설레임’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상은 “나의 재부”(2017), “푸른 숲아”(2018) 등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푸른 산’을 통해 보여주는 청사진은 ‘젊고 설레이는 조국’이자, ‘부강하고 번영한 조국’이다.

이렇듯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은 과거 고난의 행군 등과는 달라진 시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차별화됨과 동시에 강력한 생태담론을 태동시켰다. 김정일애국주의와 결합되는 생태담론은 부강조국의 미래를 ‘푸른 산’으로 표상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지속·강화될 김정은 시대 생태담론을 추적하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다.

■ 접수 : 2019년 10월 21일 / 심사: 2019년 11월 27일 / 게재확정: 2019년 11월 27일

## 【참고문헌】

### 1. 남한 문헌

#### 저서 및 논문

- J. R. 데자르뎡,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
- 김근한. “북한 지역의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기법.”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미자. “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방안-그린데탕트를 위하여.” 『환경정책』, 제23권 3호 (2015.9).
- 김석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3차 회의결과 평가.” 『현안분석-온라인시리즈』 (통일연구원, 2016.4.17).
- 김성수. “북한 초기 문학예술의 미디어 전장.” 『상허학보』, 제46권 (2015).
- 김성욱. “북한지역 산림법제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圓光法學』, 제26권 2호 (2010).
- 김수영·박소영·박경석.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 산림관리 변화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8권 2호 (2016).
- 민기재. “북한의 생태 이데올로기 및 실천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2014).
- 박경석·박소영. “북한의 보호림과 휴양이용제도.” 『한국산림휴양학회지』, 제16권 2호 (2012).
- 박경석·이성연·박소영.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중앙·지방산림조직 특징 및 운용체계 분석.”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08).
- 배금완. “북한 공원·유원지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손기웅. “북한의 환경문제.” 『진보평론』, 제12호 (진보평론, 2002).
- 신진숙. “‘동해’를 통해 본 생태주의의 제문제 - 북한의 문학예술작품 『동해천리』와 『동해의 노래』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9권 (2012).
- 오삼연. “북한의 지도자 형상화와 기억정치: 장편소설 『영생』과 『야전렬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오삼연·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2호

(2018).

- 오삼언 · 김은희 · 김경민 · 박소영.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통일 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 오창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소설에 나타난 생태 환경 담론의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67호 (2018).
- 유재심. “북한 산림경관 생태적 복원모형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유재심 · 박현 · 이상혁 · 김경민. “북한의 산림복원계획과 기준 경사도 고찰.”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제19권 (2016).
- 이경희. “북한 물 관리의 정치 -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물 협력에 대한 오스트롬(E. Ostrom)의 사회-생태 체계의 제도분석 프로그램(PIASES) 적용.”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종민 · 송민경 · 박경석. “김정은 시기(2012-2016) 북한의 산림관련 보도 분석: 산림복구사업 현황 및 한계.” 『통일문제연구』, 제29권 2호 (2017).
- 이탁연.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평양의 생태도시 구현방안 연구: 라 아바나와 부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차승주. “북한의 환경담론.” 『도덕윤리과교육』, 제49호 (2015.11).

## 기타 자료

-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포럼”(국립산림과학원, 2019).
-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산림황폐지 실태 파악”, 『국립산림과학원보고서』,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2008);

## 2. 북한 문헌

### 저서 및 논문

- 김경남. “푸른 산 푸른 들- 젊어지는 조국이어.” 『조선문학』, 3호 (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6)
- 김명철. “좋은 봄이다.” 『조선문학』, 3호 (평양:문학예술출판사, 2015)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7월 26일) 『조선신보』, 2012년 8월 3일.
- 김정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2012.4.6)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2015.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김진경. “오가산을 찾아서.” 『조선문학』, 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김창립. “생활의 선율.”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리명현. “숲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문동식. “노래로 높아지는 산정우에서.” 『조선문학』,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9).

문동식. “쌀함박.” 『조선문학』, 10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1999).

박 혁. “나의 재부.” 『조선문학』, 7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엄성영. “나무를 심자.” 『조선문학』, 3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5).

윤상근. “산촌의 메아리.” 『조선문학』, 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윤정아. “푸른 숲아.” 『조선문학』, 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7)

정영종. “푸른 산, 푸른 들.”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채동규. “숲의 이야기.”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허문길. “특별임무.” 『조선문학』, 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8).

황청일. “우리 선동원.” 『조선문학』, 5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 기타 자료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 건설지침.”(조선신보), 『연합뉴스』, 2012년 9월 10일.

“김정은 원수님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조선신보』, 2016년 5월 8일.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자.” 『로동신문』, 2018년 2월 26일.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고 있는 숭고한 후대관.”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9일.

“내 나라의 숲이여, 애국의 숭고한 뜻 전하며 무궁토록 설레이라.” 『로동신문』, 2015년 7월 2일.

“대학발전의 세계적 추세- 녹색대학.” 『로동신문』, 2018년 1월 14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7년 3월 2일.

“우리는 백배로 강해졌다.” 『로동신문』, 1999년 12월 12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주목되고있는 새로운 생물연료원천.” 『로동신문』, 2018년 1월 22일.

Ecological Discourse in the Kim Jong Un Regime  
: Focusing on 『Joseon Literature』 from 2015 to 2018

Oh Sam U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Ecological discourse on North Korea has been highlighted since the Kim Jong Un regime. The ecological discourse revealed in 『Joseon Literature』, the representative monthly magazine of North Korea from 2015 to 2018, is remarkable as it is based on a new perspective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Arduous March'. Despite the severe reality of food shortages, destruction of forest and nature during the arduous march is expressed as a shameful past. This evaluation, which is shown in "Planting Trees"(2015), shows the possibility that ecological discourse will hold strong influence on the society. "Echo of the Mountain Village"(2016), unlike the past, shows the changed era in which the party's policy of forest restoration was newly established, and an epic story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the state and its residents over the needs of the state.

The ecological discourse combined with 'Kim Jong Il Patriotism' is emphasized in a variety of ways, especially through the 'outlook for the future generation' for the next generations. The outlook, which allows future generations to benefit from the outlook in the long-term aspect, is combined with ecological discourse and is embodied in numerous literary

works such as “Melody of Life”(2017). In “Special Mission”(2018), the mission of protecting the forests of the Korean Peninsula is referred to as ‘the mission from posterity to protect forest scientists in the South’. The ecological discourse of the Kim Jong Un regime also represents the future of the nation as ‘green mountains’. The images of the future, expressed as ‘youth’, ‘greenness’ and ‘thrill’, are being embodied through “My Property” (2017) and “Green Forest”(2018). The ecological discourse in the Kim Jong Un regime, while creating a blueprint differentiated from the past, recalls the past of the “Arduous March” during which forest destruction occurred.

Keywords: Kim Jong Un Regime, Ecological Discourse, Kim Jong Il Patriotism, Arduous March, Forest Restoration

#### 오삼언(Oh, Sam Un)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2019), “김정은 시대 소설에 반영된 농업 및 과학기술정책과 변화된 일상”(2018),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2018), “『영생』과 『야전렬차』를 통해 본 북한의 지도자 형상 연구”(2018) 등이 있다.